

KLI 고용·노동 리포트

K o r e a L a b o r I n s t i t u t e

2013. 12. 27 | 통권 제47호(2013-11) |

2013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4년 전망

[요약]

- 2013년 3분기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421천 명 증가, 2013년 11월 기준 588천 명 증가하는 등 증가폭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음. 고용률 역시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상승하였음.
-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직 중심의 50대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였으며, 최근에는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고용률 회복이 관측됨.
- 제조업 고용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주도의 고용증가세는 지속되는 양상이며, 최근의 취업자 증가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주도하고 있음.
- 우리 경제는 2013년 3분기 들어 전년동기대비 3.3% 성장하여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는 연간 3.8%의 성장률이 전망됨.
- 2014년 취업자는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후행적 반응으로 2014년 414천 명 증가(1.7%)할 것으로 전망됨.

상반기 둔화되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 하반기 들어 크게 확대

- 경기가 호전되면서 2013년 3분기 421천 명 증가, 2013년 11월 588천 명 증가 등 취업자 수 증가폭이 최근으로 올수록 커지고 있음.
 - 2012년부터 지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13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었으나, 3분기 이후 회복됨.
 - 고용률도 2013년 초를 저점으로 그 이후 증가 추세를 보임.

- 35~39세는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때문에 감소하여 고용률은 전년동기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25~29세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아 고용률도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함.

- 그렇지만 최근 들어 20대 후반 연령층은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률 하락 흐름에서 점차 벗어나 추이를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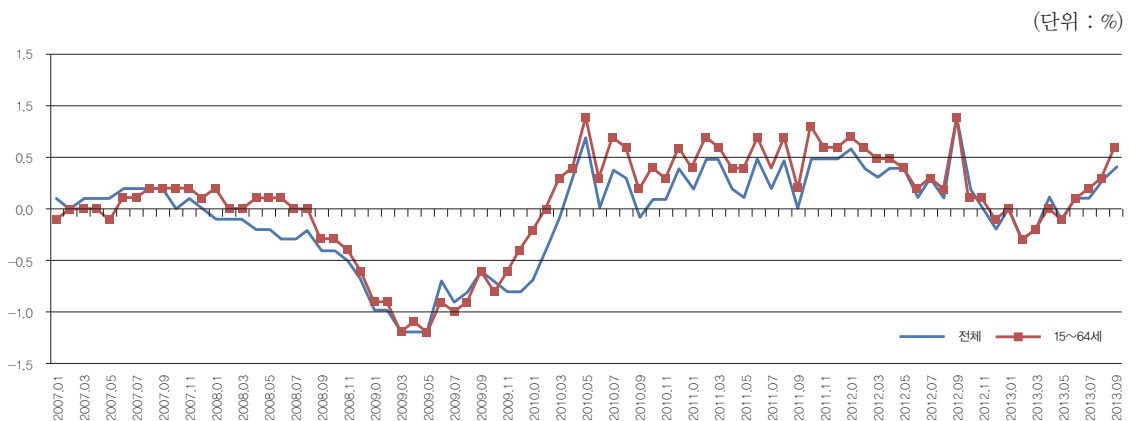
20대 고용률 감소했지만 최근 들어 회복 추세

- 취업자 수 증가는 50대 이상 연령층이 주도하는 가운데, 상반기까지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청년층 취업상황이 좋지 않았음.
- 2013년 1~10월 취업자 수 증감을 연령별로 보면 25~29세, 35~39세에서 감소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증가함.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 수 증가

-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상용직 605천 명 증가에 힘입어 451천 명 증가함.
 - 비임금근로자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42천 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29천 명), 무급가족종사자(-32천 명) 모두 감소해 취업자 증가폭 둔화에 비임금근로자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 추이



자료 : 통계청, KOSIS.

〈표 1〉 연령계층별 취업자 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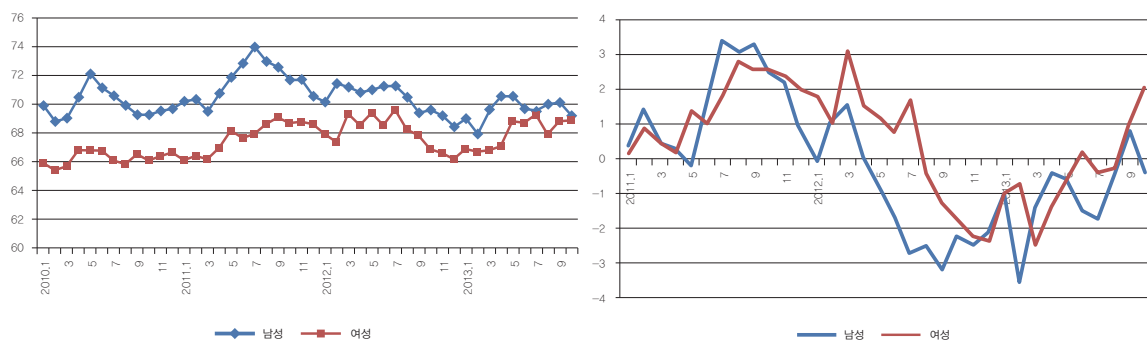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 증감						취업자 수	생산가능인구 증감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2011. 1~10	2012. 1~10	2013. 1~10
15~19세	27	22	4	25	3	-8	224	15	-50	-31
20대	-69	-58	-40	-60	-31	-63	3,565	-132	-34	66
20~24세	-11	-11	89	-11	89	23	1,271	20	131	154
25~29세	-59	-47	-129	-49	-120	-85	2,294	-152	-165	-88
30대	-4	-47	-31	-46	-31	-20	5,732	-84	-109	-68
30~34세	45	44	79	37	77	70	2,894	42	41	54
35~39세	-49	-91	-110	-82	-108	-90	2,837	-126	-150	-122
40대	29	57	11	60	15	15	6,635	13	18	25
50대	294	291	270	285	281	248	5,583	349	315	260
60세 이상	47	149	222	143	225	176	3,292	301	383	275
전 체	323	416	437	406	461	348	25,031	462	522	52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2〕 25~29세 성별 고용률(좌) 및 전년동월대비 고용률 증감(우) 추이

(단위 : %,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2〉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변화

(단위 : 천 명)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전 체	323	416	436	406	461	348
임금	517	427	315	443	322	451
상용직	697	575	436	591	434	605
임시직	-34	-78	-2	-90	18	-116
일용직	-146	-70	-120	-59	-129	-38
비임금	-194	-11	121	-36	139	-103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8	6	43	-2	58	-4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100	-5	81	-24	86	-29
무급가족종사자	-76	-12	-3	-11	-6	-3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제조업 고용이 증가한 가운데 서비스업 주도 고용증가세는 지속

- 2013년(1~10월 평균)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은 전년동기대비 다소 둔화되었으나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서비스업 고용증가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제조업의 고용둔화폭 또한 예상보다 줄어든 양상을 보임.
- 서비스업 부문 취업자(1~10월 평균)는 전년동기 대비 273천 명 증가하여 2012년 455천 명 증가에 비해 크게 미흡하지만 보건 및 사회복지서

비스업의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148천 명 증가하면서 서비스업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음.

- 반면 제조업 부문 취업자는 2012년 7월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어 2013년 상반기에만 전년동기대비 120천 명 증가하는 등 전년동기대비 83천 명 증가하여 2012년과 상반된 고용성격을 보여줌. 이는 2012년 제조업 부문 고용감소에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임.
- 2013년에도 민간부문 주도의 고용증가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공부문의 고용증가세도 2012년에 이어 지속되고 있음(2013년 10월 현재 4개월 연속 증가세).

〈표 3〉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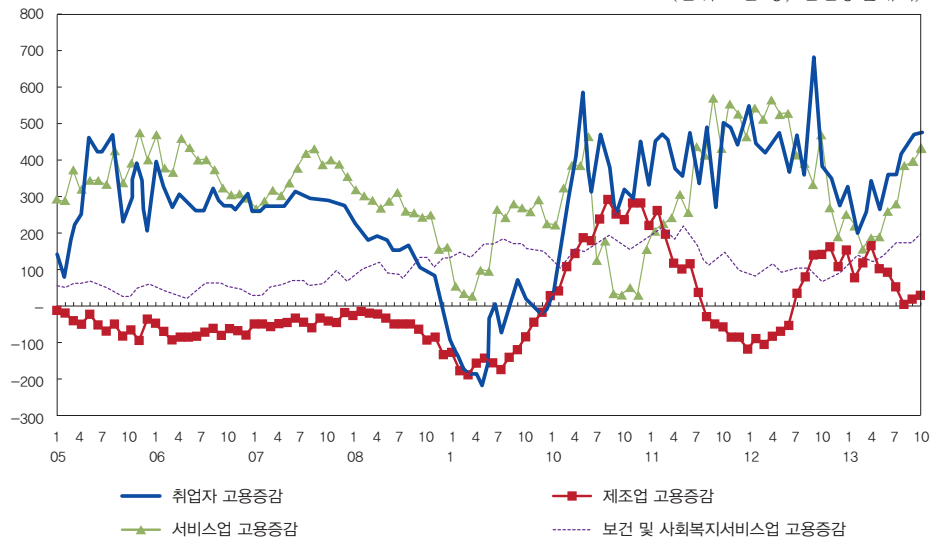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취업자 전체	282	145	-72	323	416	437	407	461	348
농업·임업 및 어업	-58	-37	-38	-82	-25	-14	-26	-18	-4
전기·가스 등	10	4	6	-17	-3	0	-2	-2	17
건설업	16	-37	-92	33	-2	22	-20	38	-22
제조업	-42	-52	-126	191	63	14	93	-11	83
서비스업	356	260	179	199	386	416	365	455	273
도매 및 소매업	-38	-42	-31	-20	58	51	48	61	-45
운수업	54	1	-1	33	52	48	49	48	33
숙박 및 음식점업	0	-5	-108	-47	-36	53	-39	53	53
출판·영상·방송 등	-17	-7	25	16	35	-3	34	6	-11
금융 및 보험업	20	15	-55	42	38	-4	35	1	23
부동산 및 임대업	6	-17	12	17	-31	0	-32	-1	-4
전문·과학 등	21	55	87	39	78	67	80	72	-4
사업시설관리 등	135	20	-29	78	64	30	69	23	64
공공행정·국방 등	-5	44	191	-72	-9	0	-6	7	8
교육서비스업	38	44	48	-33	-113	58	-131	64	-1
보건·사회복지 등	59	103	156	155	159	88	170	90	148
예술·스포츠 등	-8	48	-28	-11	37	-8	41	-5	-24
협회 등	73	6	-86	5	45	25	38	24	29
공공	-5	44	191	-72	-9	0	-6	7	8
민간	287	101	-263	395	424	436	413	454	340
300인 미만 중소기업	337	117	-189	354	378	381	357	412	233
300인 이상 대규모	-55	28	117	-31	37	55	49	49	1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그림 3]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둔화는 자영업자와 임시직의 고용감소에서 비롯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서비스업 성장률 또한 2010년 3.9%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2%대 성장(2013년 1분기 1.8%, 3분기 2.3%)을 기록하는 등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고용 또한 임시직과 자영업자의 감소로 인해 고용증가폭이 둔화됨.
- 2013년 서비스업 고용증가폭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2012년 전년동기대비 121천 명 증가한 것과 달리 2013년에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을 중심으로 26천 명 감소함.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3년 들어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0월 현재 15천 명 증가하는 등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임.
 - 자영업자와 함께 2013년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폭 둔화를 이끈 것은 임시직의 고용

감소임. 서비스업 부문 임시직은 30대 연령층(전년동기대비 116천 명 감소), 도소매업(53천 명)과 교육서비스업(45천 명)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87천 명 감소하였으며, 음식숙박업에서는 오히려 임시직이 전년동기대비 32천 명 증가함.

최근 고용증가세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에서 주도

- 서비스업 부문 고용증가폭이 크게 둔화된 반면, 서비스업 내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고용증가세는 최근 몇 년간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1~10월 평균)에도 전년동기대비 148천 명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 전반의 고용호조세를 견인하고 있음.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일자리 10개 중 8개가 여성 일자리일 정도로 여성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이며, 보건·사회복지·종교관련직이나 의료보조직 등 돌봄서

〈표 4〉 서비스업·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특징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1, 1~10	2012, 1~10	2013, 1~10
서비스업 취업자 전체		356	260	179	200	386	416	364	455	273
(신규채용)		39	-44	106	-10	-44	-62	-34	-44	-52
서비스업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360	281	390	371	379	317	377	340	314
	상용직	294	305	360	502	475	345	468	360	409
	임시직	94	-25	116	-46	-57	36	-63	52	-87
	30대 연령층	-13	-10	-58	-13	-72	-61	-67	-49	-116
	일용직	-27	1	-87	-85	-39	-65	-28	-72	-7
	비임금근로자	-4	-22	-212	-171	7	99	-13	116	-42
	자영업자(고용원 있는)	-40	4	9	-33	6	52	-5	65	-15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52	-31	-182	-78	2	53	-9	56	-11
	무급가족종사자	-17	5	-39	-59	0	-6	2	-6	-16
보건·사회복지업 취업자 전체		59	103	156	155	158	88	170	90	148
(신규채용)		3	6	5	8	13	3	18	2	0
성별	남자	19	11	15	6	19	13	21	14	28
	여자	40	92	140	149	140	75	149	76	119
직종별	전문가 및 관련전문가	44	99	51	73	102	79	107	79	115
	(신규채용)	6	6	5	13	10	-1	14	-2	-4

주 : 근속기간 3개월 미만 근로자를 신규채용으로 간주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비스(care service)부문의 여성일자리에 집중되어 있음.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 추세인 반면, 청년층과 노동시장 핵심연령층의 고용비중은 감소세이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몇 년간 고용증가세를 견인하고 있는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부문에서도 신규채용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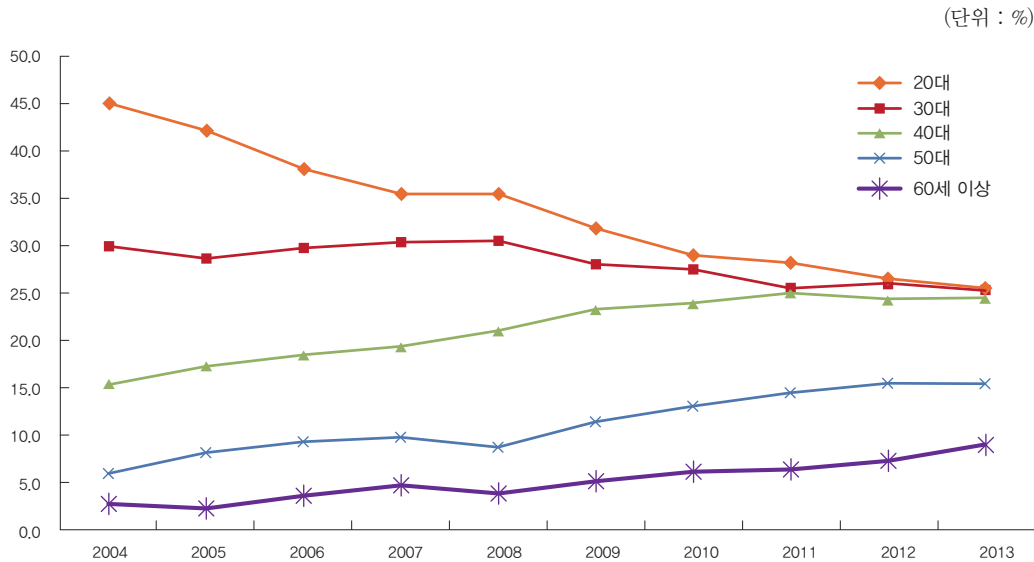
- 대규모 사업체의 고용은 2012년 5월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어 2013년 전년동기대비 115천 명 증가하였으며, 신규채용은 2013년 6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고용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2013년 고용증가폭(233천 명 증가)은 자영업

자와 임시직(119천 명 감소)의 고용감소로 크게 둔화됨. 중소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2011년 7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해 오다가 2013년 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어 2013년 전년동기대비 71천 명 감소함. 이는 2012년 고용증가세를 이끌면서 144천 명 증가한 것과 대비됨.

2014년 취업자 수 414천 명 증가할 듯 (증가율 1.7%)

- 우리나라 경제는 2012년 말~2013년 초에 경기저점을 통과한 이후 2013년 3분기에는 전년 동분기대비 3.3% 성장함.
- 한국은행(2013년 10월)은 이러한 국내경기 회복세와 더불어 세계경제 호조에 대한 예상을 반영하여 2014년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함.

[그림 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의 연령별 비중 추이



주 : 2013년은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5> 한국은행 2013년 · 2014년 경제전망

(단위 : %, 만 명)

	2013. 1				2013. 4				2013. 7				2013. 10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2013		2014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세계경제성장률	3.1	3.6	3.4	3.8	3.0	3.6	3.3	3.9	3.0	3.4	3.2	3.8	3.0	3.3	3.1			3.6
경제성장률	1.9	3.5	2.8	3.8	1.8	3.3	2.6	3.8	1.9	3.7	2.8	4.0	1.9	3.6	2.8	3.9	3.7	3.8
민간소비	2.6	3.0	2.8	3.4	2.3	2.6	2.5	3.3	1.7	2.4	2.1	3.5	1.6	2.1	1.9	3.3	3.3	3.3
수출	4.3	6.6	5.5	8.2	4.5	5.9	5.2	8.3	5.0	5.2	5.1	8.0	5.3	5.7	5.5	4.8	9.4	7.2
취업자 수	27	33	30	32	25	30	28	30	29	36	32	40	29	37	33	40	37	38
실업률	3.5	3.1	3.3	3.2	3.5	3.2	3.4	3.3	3.4	3.0	3.2	2.8	3.4	3.0	3.2	3.2	2.9	3.0

주 : 한국은행 2013년 3분기 경제성장률(속보치)은 3.3%를 기록함.
 자료 : 한국은행 보도자료, 각월.

- 2014년에는 소득여건 및 소비심리 개선으로 경제성장률에 대한 내수부문의 기여가 높아질 예정이며 수출도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금년 보다 증가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 2014년 고용사정은 경기회복세 지속에 따른 후행적 반응으로 2014년 414천 명의 취업자 증가가 예상된다.
 - 2013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3.6% 전제하에, 하반기 취업자 증가 수는 434천 명으로 예상되며, 성장률이 3.9%로 높아질 전망이다 2014년 상반기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423천 명으로 예상됨.
 - 2013년 중의 취업자 증가는 상용직의 꾸준한 증가세 유지와 일용직 감소세 둔화, 그리고 비임금근로자 감소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상당 부분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표 6〉 경제성장률·취업자증가율·고용탄력성 추이

(단위: 천 명, %)

	고용증감	경제성장률	취업자 증가율	고용탄력성
1998	-1,276	-5.7	-6.0	1.055
1999	353	10.7	1.8	0.165
2000	865	8.8	4.3	0.484
2001	416	4.0	2.0	0.492
2002	597	7.2	2.8	0.384
2003	-30	2.8	-0.1	-0.049
2004	418	4.6	1.9	0.411
2005	299	4.0	1.3	0.331
2006	295	5.2	1.3	0.248
2007	282	5.1	1.2	0.239
2008	145	2.3	0.6	0.268
2009	-72	0.3	-0.3	-1.014
2010	323	6.3	1.4	0.218
2011	415	3.7	1.7	0.471
2012	437	2.0	1.8	0.900
2013p	362	2.8	1.5	0.525
2014p	414	3.8	1.7	0.435

주: 2013, 2014년 수치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 연도.

〈표 7〉 2013년 하반기·2014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2013			2014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p	하반p	연간p
경제성장률	1.9	3.6	2.8	3.9	3.7	3.8
생산가능인구	41,985	42,217	42,101	42,468	42,699	42,583
경제활동인구	25,614	26,079	25,846	25,999	26,455	26,227
경제활동참가율	61.0	61.8	61.4	61.2	62.0	61.6
취업자	24,755	25,331	25,043	25,178	25,748	25,463
(증가율)	1.2	1.7	1.5	1.7	1.6	1.7
(증감수)	291	434	362	423	405	414
실업자	859	748	803	820	707	764
실업률	3.4	2.9	3.1	3.2	2.7	2.9
고용률	59.0	60.0	59.5	59.3	60.3	59.8
비경제활동인구	16,371	16,138	16,255	16,469	16,243	16,356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팀
 02-3775-5590 / baekj@kli.re.kr

※ 본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 홈페이지 www.kli.re.kr 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발행인: 이인재 / 편집인: 남재량 / 편집·교정: 정 철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Tel : 02-3775-5514 / Fax : 02-3775-0697 / www.kli.re.kr